

## 17. 동아시아의 「개국」과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아편전쟁과 메이지유신③

---

현대 동아시아의 형성(2020s)  
독습용 보조교재 & 과제

## 0. 시대연표(ppt16과 동일)

중국	한반도	일본
1830		
1840		
1850		에도 (江戸) 시대
1860	조선 (朝鮮)	
1870		
1880		메이지 (明治) 시대
1890	대한제국 (大韓帝國)	
1900		

<p>프리스호 사건(1837),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(1837), 임칙서 광둥파견(1838)</p> <p>아편전쟁 발발(1840), 덩표거역(1841), 남경조약(1842)</p> <p>태평천국 건국(1851), 페리 함대의 일본방문(1853), 미일와친조약(1854)</p> <p>아로호 사건(1856), 영국 연합군의 광주 점령(1857), 천진조약(1858), 미일수호통상조약(1858)</p> <p>북경조약(1860), 갑골제 사망&amp;돌치제 준위(1861), 종리아문 설치(1861), 양무운동 시작(1861), 태평천국 멸망(1864)</p> <p>사츠마-초슈 동맹(1866), 대정봉환(1867), 왕정복고 쿠데타와 에도막부 붕괴(1867), 보신전쟁(1868), 만주봉환(1869)</p> <p>페번치현(1871), 청일수호조규&amp;통상장정(1871), 대만사건(1871), 이와쿠라 사절단(1871-3), 일본의 정병력과 지조개정(1873), 정한론 논쟁(1873), 일본의 대만침략(1874)</p> <p>조일수호조규(1876), 세이난 전쟁(1877), 류큐병환(1879)</p> <p>임오군란(1882), 한중상민수호무역장정(1883), 청불전쟁(1884), 궁친왕 사임(1884), 갑신정변(1884), 천진조약(1885), 자유민권운동(1890년대 전반)</p> <p>토쿄 제국대학 설립(1886), 대일본제국헌법 발표(1889)</p> <p>제국의회(1890), 교육칙어(1890), 동학농민운동(1894), 청일전쟁(1894-5), 갑오경장(1894), 시모노세키 조약(1895), 삼국간섭(1895), 을미사변(1895), 대한중독부 설치(1895), 변법운동(청일전쟁 이후)</p> <p>아관파천(1896), 대한제국 성립과 광무개혁(1897), 독립협회와 입헌군주제 주장(1898), 루슬렌법(1898), 루슬렌법(1898)</p> <p>의화단 사건(1900), 8개국 연합군의 북경점령(1900), 신조조약(1901), 광서신정(1901), 영일동맹(1902), 러일전쟁(1904-5), 제1차 한일협약(1904), 포츠머스 조약(1905), 제2차 한일협약(통사조약, 1905)</p> <p>청조의 입헌선포(1907), 고종회위와 한일신협약(1907)</p>
--

## 1. 일본 개국의 배경: 19C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미국의 뒤늦은 참여

### • 산업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

: 영국發 산업혁명(18C 후반~)과 공업생산력의 상승

: 열강의 아시아 진출...물품의 판매시장과 원료 확보

→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아시아를 강제 편입 시도.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/종속국化

: 19C 이후 일본 근해에도 출몰

### • 아편전쟁(1840)과 열강의 통상요구

: 근세 이래 교역국이던 네덜란드 · 중국의 선박을 통한 정보 입수

→당사자 청조보다 충격. 그 이유?

: 영국이 개국/통상 요구를 위해 군함 파견?

→기존의 강경책을 전환(→음료수&연료 제공 후 신속히 내보낸다는 방침)

→방침 전환의 의미

: 네덜란드 국왕의 친서 전달(1844)과 막부의 대응

## 1. 일본 개국의 배경: 19C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미국의 뒤늦은 참여

### • 그런데 왜 영국이 아닌 미국이었는가?

: 미국의 19C...서부개척&산업혁명

: 중국무역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한계

: 캘리포니아 획득과 「골드러시」(Gold Rush: 1848)...본격적 서부개발

: 태평양 횡단항로 개발에 본격 착수→연료의 중간보급지가 필요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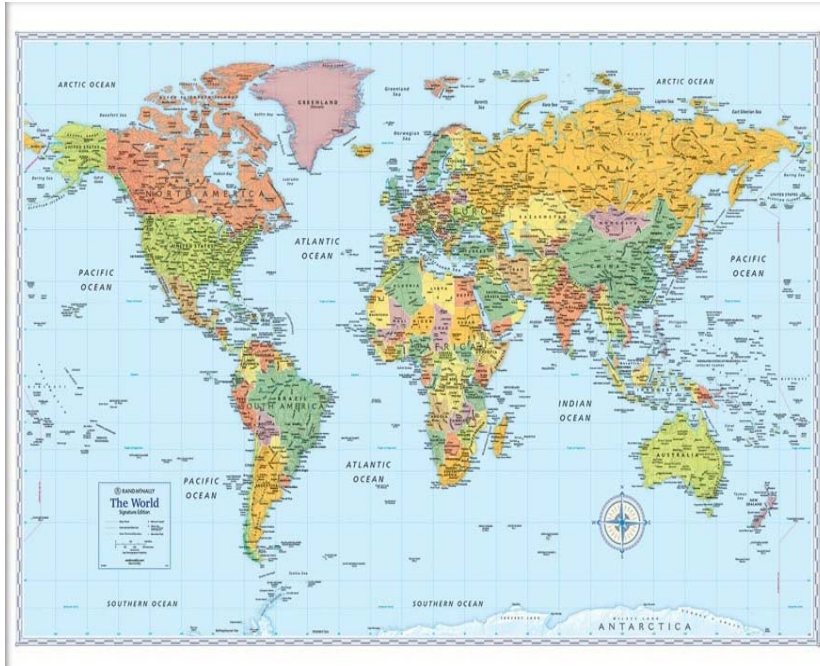
: 미 대통령 필모어(M. Fillmore) 연설(1850)의 영향과 그 의미

→「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증기선 항로를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하여, 전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체인의 마지막 사슬을, 기업심 넘치는 우리 상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당장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」

→태평양 횡단 항로 개설이 초래할 유럽의 지정학적 우위의 소멸

## 1. 일본 개국의 배경: 참고도판

### 유럽 중심의 세계지도 (예시)



### Matthew Calbraith Perry 초상



## 2. 메이지 전기(1868~1880년대): 근대국가 형성기

### • 페리 제독의 방문과 일본의 개국(1853~54)

: 「함포외교」(Gunboat Diplomacy)와 불평등조약의 체결→개국

: 「무위」(武威)의 손상과 막부 지배의 동요

: 도자마(外様) · 신판(親藩) 다이묘의 정치활동 개시

: 하급무사들의 「존황양이」(尊皇攘夷) 주장과 反막부 정서

→「천황」이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으로 부상

### • 소위 「불평등 조약」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

① 불평등 조약은 곧 식민지化를 의미하는가?

cf. R. Alcock, *The Capital of the Tycoon*

② 영사재판권은 현지의 법체계를 열강이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인가?

cf. 당시 국제법상의 식민지化 요건

→①무주지(無主地)+②선점권(先占權)+③다른 열강의 인정, 을 모두 충족

cf. 당시 국제법상의 세계...독립주권국, 보호령(protectorate), 식민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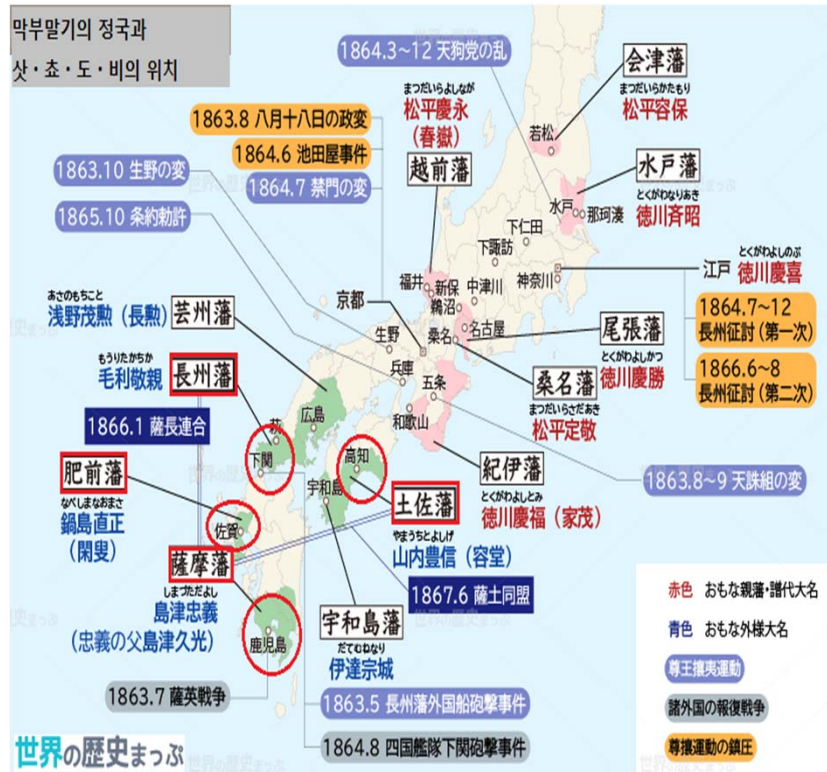
## 2. 메이지 전기(1868~1880년대): 근대국가 형성기

- 왕정복고 쿠데타와 메이지 유신의 시작(1860~70년대)
  - : 도쿠가와 막부와 反막부세력의 충돌
  - : 「메이지유신」의 주역→사츠마(薩摩) · 조슈(長州) · 도사(土佐) · 히젠(肥前: 사가佐賀라고도 함)이란 4개의 도자마번 출신 하급무사들
  - :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(=군현제)를 지향
    - 토지&인민의 천황 귀속, 지방행정제도 재편, 징병제에 기초한 중앙군 창설
    - 중앙집권적 정부기구 설치, 신분제도 개혁, 토지&조세제도 개혁 등
  - : 개혁에 대한 불만→일부 사츠마군의 이탈과 무장반란(세이난西南전쟁: 1877)
    - 신정부의 대응과 반란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
    - 신정부에 대한 불만표출 형태의 변화...언론비판과 「자유민권운동」



## 2. 메이지 전기(1868~1880년대): 참고도판

**막부말기 정국과 유신주도세력의 위치:**  
사츠마 · 조슈 · 도사 · 히젠(동그라미 안)



## 세이난 전쟁도 (당시의 목판화)





## 2. 메이지 전기(1868~1880년대): 근대국가 형성기

- 입헌정치(=의회제도 수립)를 향한 여정
  - : 일본인들이 본 서구열강의 「힘」의 비결→「국민」(not 백성)과 「의회」
  - : 「만국대치」(萬國對峙)가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입헌제도 도입
  - 재야 정치세력의 「자유민권운동」을 약화시키는 부수적 효과
  - : 이토 히로부미(伊藤博文)의 서구열강 방문과 헌법조사
  - 「대일본제국헌법」(메이지헌법)의 공포(1889)

### 3. 메이지 중기(1890년대): 근대국가 완성이

- 「대일본제국헌법」과 그 주된 특징들

: 헌법의 완성→서구적 근대국가의 완성

① 신성불가침한 천황에게 (표면적으로는) 강력한 통치권이 집중됨

② 총리와 내각구성원들에 대한 조항이 부재(상하관계도 규정X)

→not 의원내각제

③ 신분에 따른 상/하원 구분, 미약한 하원의 권한

→ 제한선거(⇔보통선거). 고액납세자&귀족을 천황이 임명

→오늘날보다 훨씬 기득권층(elite)이 유리.

→일반국민(mass)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지배층의 불신

④ 헌법의 조문내용과 그 실제적 운용의 차이

→강력한 통치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천황이란 관행

→(천황이 아닌) 행정부 고위층과 「원로」에 의한 지배(=oligarchy)

⑤ 국가권력의 분산(할거)성

→헌법상 여러 국가기관들이 서로 책임관계(=상하관계)없이 병렬/독립적으로 존재하며, 오직 주권자/통치권자인 천황의 밑으로만 통합/수렴됨

→행정부 고위층과 원로의 기능

→이 특징이 갖는 역사적 의미

### 3. 메이지 중기(1890년대): 근대국가 완성이

- 「원로」(元老: founding fathers)
  - : 메이지유신의 주도자들(=개국공신들)의 정계 일선 은퇴 이후의 별칭
  - : 헌법을 초월한(=헌법에 규정되지 않는) 권력집단
  - : 그 상반된 평가들...「독재자」 or 「능력자」?
  - : 원로 소멸 이후의 일본정치
- 청일전쟁(1894~95)이 일본에 미친 영향들
  - :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타협/신뢰관계 구축(=「거국일치」체제 형성)
    - 선출권력의 근거지인 의회와 非선출권력의 근거지인 행정부
  - : 거액의 배상금 획득→일본경제의 발전궤도 진입
    - 전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형성

## 4. 과제

### Q.1 왜 「혁명」이 아니라 「유신」(維新)인가?

: 메이지유신의 결과로 일본은 서구식 근대국가로 그 모습을 일신(一新)하는데 성공했는데, 이런 엄청난 변화만을 놓고 본다면, 비록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한다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혁명은 아닐지라도, 메이지유신은 「혁명」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. 그러나 메이지유신은 그 당시에 도(말 그대로 「一新」이라 불림)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혁명이 아닌 「유신」이란 용어로 불린다. 그 이유는 왜일까? 본 강의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, 각자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A4 1/2면 정도로 추론해 보시오. 참고로 유학(儒學)과 천황(天皇)의 관계가 그 힌트가 될 것이다.

## 4. 과제

### Q.2 일본의 서구적 근대화 「성공」 이유에 관하여

: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와는 달리, 근대일본은 결과적으로 서구 근대화에 「성공」한 것으로 평가받는다. 그 이유를 놓고는 메이지유신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해 왔지만, 최근의 일본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설명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
: 먼저 근대 이전까지 일본이 중국적 세계질서의 「주변부」적 존재였기 때문에, 그 질서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적응이 빨랐다는 설명이다. 둘째로, 서구화라는 이질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유교적 중앙집권체제 (=군현제)로 잘 포장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. 셋째로는 쇼군 중심의 막부 지배가 무너져도 천황이라는 또 하나의 구심점 (비유하자면 스페어 타이어와도 같음)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순탄한 체제이행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.

: 그 밖에 어떤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? 학부생인 여러분들에게 위에서 예시한 설명들처럼 고차원의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. 감상 수준이라도 무방하니, 이제까지의 강의 내용과 각자의 추가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에 입각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보시오. (분량자유)